

## 공부할 장소가 많이 생겨 좋아요

사하구 동네방네 학습관 15곳 문 열어



사하구에 동네방네 학습관 15곳이 문을 열었다. 동네방네 학습관은 학습공간이 부족한 구민들에게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였다. 지난 달 11일 학습관 1호점 당리 아이비츠 학원이 문을 열었다. 개소식은 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동네방네 학습관 지정서 전달과 현판 수여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경훈 구청장은 “요즘은 뭐든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남과 나누어 쓰는 게 대세이다. 학습관도 마찬가지다. 막상 공간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선뜻 동네방네 학습관이 되어 준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1호점으로 개관하는 당리 아이비츠 학원 김종길 원장은 괴정이 고향이다. 김 원장은 “학생들이 학원에 오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런 행사가 있

어 동참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하였다. 1호점 아이비츠 학원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 13시부터 15시까지 2개의 강의실을 개강한다.

지금까지 확정된 동네방네 학습관은 15곳이며 올해 연말까지 20개를 목표로 두고 있다. 동네방네 학습관은 지역주민에게 호응이 좋다. 15개 동네방네 학습관 중 3곳은 이미 동아리와 스터디로 학습 회의를 하고 있다. 5호점 소리너름에서도 평생학습관 동아리 재능기부 특강 장소로, 2호점 아트카페&공방은 넷킨아트 동아리 학습장소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동네방네 학습관은 동아리들의 학습이나 회의, 발표회 장소로 사용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학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평생학습을 확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간을 기부하는 시설에는 동네방네 학습관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개방

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1년 간의 개방실적에 따라 다음해부터 시설에서 원하는 평생교육강좌를 년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들은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시설의 규모, 개방일정, 위치, 사용가능 도구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과 220-4805

### 동네방네 학습관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1호점	아이비츠 학원	당리동
2호점	아토카페&공방	하단1동
3호점	워터플레이스 낙동강문화관	하단2동
4호점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평1동
5호점	소리너름	괴정1동
6호점	형설모두학교	괴정3동
7호점	가온누리 작은 도서관	감천1동
8호점	미래심리상담연구소	괴정2동
9호점	마하골 길벗 작은도서관	괴정4동
10호점	당리 작은도서관	당리동
11호점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하단1동
12호점	꿈꾸는 작은도서관	신평2동
13호점	무지개 작은도서관	장림1동
14호점	낫개 작은도서관	다대2동
15호점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감천1동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 채워지는 평생학습 더해지는 시민 행복

### 평생학습 아고라로 만드는 시민 소통의 장

제1회 부산평생학습 아고라-‘평생학습, 행복한 동행’이 부산광역시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달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부산의 평생학습 혁신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충하고 시민과의 소통의장을 만들기 위한 자리로 12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된다. 이 날 행사는 부산시장과 16개 구군의 평생학습 관계자와 부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패널 좌담 위주로 진행되었다.

김은숙 동구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비전, 평생학습과 삶의 변화에 대한 주제 강연을 했다. 평생학습은 세 아이의 엄마로 살던 그녀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꿈과 기회를 주었다고 했다. 평생학습에 대한 패널 좌담을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은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통해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평생교육이 이를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다복동사업과 행복학습센타 연계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숙 평생교육사는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고 학습의 즐거움을 통해 삶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자기감동이라고 말했다. 김금영 남구 평생학습매니저는 평생 교육을 통해 본인의 진화 발전에 이어 다른 사람에게



로 확산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봉사로만 여기는 평생학습매니저의 처우 개선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하였다.

두 번째 평생학습 아고라는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하단동 아트몰링 옥상정원에서 열렸다. 아모레퍼시픽 직원으로 히말라야 등반과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유정 씨는 ‘미치도록 사랑한 나의 삶, 그리고 지

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도전 정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의지 등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였다. 사진작가 김홍희 씨는 부산의 골목 사진을 통해 부산의 구도시 흔적과 아련한 추억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산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평생학습 아고라를 통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였다. 9월에는 문해, 내 삶을 더 향기롭게 라는 주제로 부산시청에서 열리니 참여해도 좋겠다.

문의 :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580-9016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 인생 돌아보기부터 생활 속 요리까지

### 인생학교 비롯 평생학습관 하반기 강좌 문 열어

8월 28일 인생 학교 ‘당신이 필요해’를 시작으로 2017년 사하구 평생학습관 하반기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사하구는 평생학습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인문교양 11개 강좌, 직업능력 5개 강좌, 시민참여 3개 강좌, 문화예술 1개 강좌가 개설된다. 인생 학교 ‘당신이 필요해’ 와 꽃보다 누나 ‘중년여성 생년기 극복프로그램’은 50~60대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이 강좌는 생년기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60대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도 개설되었던 남성들을 위한 왕초보 요리교실은 인기 덕분에 하반기에도 다시 개설된다. 주말에 열리는 ‘한 끼 해결 브런치’도 남성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이다. 요리에 관심 있는 남성이라면 꼭 한 번 참여해 보길 권한다.

하반기 모든 강좌는 사하구 평생학습관 앱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학습관으로 방문해도 가능하다. 평생학습으로 알찬 가을을 보내고 싶다면 하반기 강좌를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2면 계속)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220-4117~8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 삶의 지혜와 경험의 넘쳐나는 곳

##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사하구에는 오롯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이 있다.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 2011년 4월부터 사하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다.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해 무료로 수지침과 한방검진을 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및 세무 관련 상담을 11월부터 선착순으로 할 예정이다. 경로식당과 머리손질도 각각 2천원이면 받을 수 있다.

특히 평생교육 사업은 다양하고 폭넓게 운영 중이다. 사하구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우선 수강할 수 있고 미달과목과 대기접수는 다른 구민도 수강이 가능하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연 평균 50개 이상 운영 중이다. 취미여가 프로그램, 어학교양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정보화 프로그램 등 없는 게 없는 평생 학습의 백화점이라 하겠다. 초등과정, 중등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검정고시반,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교실, 컴퓨터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정보화교실, 봇글씨와 미술교실, 민요와 사물놀이를 배울 수 있는 음악교실, 체조, 댄스, 요가

교실도 운영 중이다. 요가교실과 노래교실 그리고 정보화교실은 그 중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이 원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강좌는 태극권과 역사교실이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추첨제로 8월 2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초등 검정고시반을 제외한 나머지 강좌는 약간의 수강료와 교재비가 있다. 이용절차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접수상담을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결정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함도 운영하고 있다.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은 괴정동에 본점(전화 051-293-9544)이 있고 2013년

에 문을 연 신평동 분점(전화 051-207-9544)이 있으니 가까운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sahasilver.org>)를 통해 알 수 있다.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키우고 행복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존중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행복한 생활 공간이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한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 2017년 하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요일	시간	인원	교재비	장소
1	인생학교 '당신이 필요해' 가족관계편	8.28~12.18 (15회, 30시간)	월	10:00~12:00	20	–	
2	인생학교 '당신이 필요해' 대인관계편	9.1~12.15 (15회, 30시간)	금	10:00~12:00	20	–	
3	꽃보다 누나 '중년여성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9.5~11.28 (12회, 24시간)	화	10:00~12:00	20	재료비 1만원	
4	칼라클레이강사 양성과정	8.28~12.18 (15회, 30시간)	월	10:00~12:00	20	재료비 6만원	
5	역사문화해설사 양성과정 문화관광과 연계	8.28~11.30 (25회, 75시간)	월, 목	10:00~13:00	30	–	
6	사하 그린리더 별굴과정	9.5~11.14 (10회, 20시간)	화	10:00~12:00	30		사 하 구 평 생 학 습 관
7	지역문제 체인지메이커	9.6~11.1 (8회, 16시간)	수	10:00~12:00	30		
8	스마트폰 영상제작소	9.5~11.28 (12회, 24시간)	화	14:00~16:00	20	–	
9	뚝딱뚝딱! 나무공작소	9.5~11.14 (10회, 20시간)	화	14:00~16:00	30	재료비 10만원	
10	영유아오감발달 강사 양성과정	9.6~12.20 (15회, 30시간)	수	10:00~12:00	20	재료비 3만원	
11	베이비마사지 강사 양성과정	8.31~12.21 (15회, 30시간)	목	10:00~12:00	20	재료비 7만원	
12	사주명리학	8~31~11.23 (12회, 24시간)	목	10:00~12:00	20	–	
13	자유여행플래너 스페인편	9.8~12.22 (15회, 30시간)	금	14:00~16:00	20	–	
14	드라마로 보는 한국사	9.8~11.3 (8회, 16시간)	금	14:00~16:00	30	–	
15	파워스피치 역량 강화과정	8.30~10.25 (8회, 16시간)	수	19:00~21:00	30	재료비 1만원	
16	평생학습 연극홍보단	9.6~11.15 (10회, 20시간)	수	19:00~21:00	20	소품비 5천원	
17	고품격인문학 '현대미술편' 사하문예인 도슨트양성과정	9.7~11.30 (12회, 24시간)	목	19:30~21:00	30	재료비 3만원	
18	한방산야초	9.7~12.21 (15회, 30시간)	목	18:30~21:30	30	재료비 4만원	
19	남성들을 위한 왕초보 요리교실	9.7~11.16 (10회, 20시간)	목	19:00~21:00	20	재료비 7만원	사 하 구 평 생 학 습 관
20	주말, 한끼 해결 브런치	9.2~10.14 (6회, 12시간)	토	10:00~12:00	20	재료비 6만원	
21	한글문해교실 한음반(기초)	연중 운영	월, 화	14:00~16:00	20	무료	
22	한국문해교실 오성반(초급)	연중 운영	월, 수	14:00~16:00	30	무료	

\* 1인 1강좌 원칙이며 상기운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인원 10명 미만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신나게 즐겼던 '여름 특강'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이 강사로 나선 특별한 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가 큰일을 했다. 동아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여름방학 특강 강사로 나선 것이다.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23개 여름방학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7월말부터 시작해 오는 8월말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26일 '날도래강도래'의 생태 이야기로 시작한 특강은 게임을 곁들여 쉽게 다가가는 강의 형식이라서 어린이 학습자의 반응이 좋다. 신청자가 많은 강좌는 '늘봄풍물단'과 '소리너름'의 사물놀이, 방학과제가 가능한 '종이비행기'의 클레이으로 보는 어항 속 세상, 냅킨공예이다. 특별히 '늘봄 풍물단'과 '소리너름'은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여 우리 가락과 장단에 관심을 보였다. 이미 감천1동 주민자치단체에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리센-선물포장'은 환경을 생각한 천연주방세제 만들기로 인기를 모았다. 강좌보다 체험부스를 통해 알려진 '말끄미'는 이번 특강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정리정돈 법을 가르쳐 주었다. '행복디딤돌'의 북아트로 만나는 사하의 역사 역사이야기와 한자로 알아보는 동네 이야기, 직업상담사의 동아리 '아직꿈'이 제공하는

진로상담 특강에 거는 기대도 크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무드 Think & Solve 사하 ONE'의 수학교구놀이에서 만난 정지영 어린이(초6)는 쉬는 시간에도 소마큐브 구성에 푹 빠졌다. 2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게임보다 교구 놀이를 더 즐기는 모습에 강의를 진행하는 동아리 회원들은 흐뭇해했다. 앞서 진행된 학부모 대상의 자녀와 소통하는 탈무드 교구놀이도 큰 호응을 얻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8월말까지 남은 특강도 재능기부에 나선 회원들에겐 자부심과 보람을 주고, 학습자에겐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방학 특강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했던 초등학생들이 특별한 학습 기회를 경험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여름 특강을 준비한 이주영 평생학습사는 "동아리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발판 삼아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의 재능기부가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 2017년 여름을 특별하게 해준 특강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평생학습으로 더위 날리다

2017년 여름 특강은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그늘 같았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방학을 맞은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하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특별한 강좌가 펼쳐졌다. 사하구 평생학습 기자단이 특별한 수업현장을 찾아가 함께 해보았다.

#### 전통미가 돋보이는 매듭으로 패션 소품 만들기



여름 특강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3개였다. 대부분 여름철에 어울리는 특강이었는데 전통적 가치가 새롭게 다가온 ‘전통 매듭으로 패션 소품 만들기’ 수업을 찾아가 보았다.

수강생 10여명이 강사의 시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강사 옆에 바싹 붙어 서서 설명을 듣는 모습부터 만날 수 있었다. 그래도 매듭 방법을 자꾸 까먹어서 여기저기서 강사의 도움을 요청한다. 벌써 지난 수업 때 만든 매듭 브로치를 가슴에 단 수강생과 팔찌를 하고 온 수강생도 있었다. 특히 ‘마’ 소재의 여름 옷에 전통 매듭 액세서리가 참 잘 어울렸다.

직접 만든 매듭 브로치를 한 김향숙(60세·다대동) 씨는 전통놀이 지도사라서 강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수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매듭 팔찌 만들기를 배워서 자신이 하는 전통놀이 수업에 활용했다고 한다.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더 다양한 매듭 기법을 배우고 싶은데 수업이 4회로 끝나 아쉽다고 말했다.

정갑선 강사는 도래 매듭, 넝쿨 매듭, 평 매듭 등 여러 가지 매듭 묶는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며 “손재주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누구나 도전해 보길 권했다. 강사는 실크 실로 만든 제품이 면보다 훨씬 비싸지만 색이 더 곱고 선명해서 귀걸이, 팔찌, 브로치 등 자신만의 패션 소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워서 전통 매듭 강사나 창업, 다른 수업에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 나에게 꼭 맞는 책으로 독서 습관 키워요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 독서수업

“선생님, 독서 수업을 왜 컴퓨터실에서 해요?” 방학을 맞아 들뜬 학생들이 궁금증을 안고 전산실로 들어온다. 함께 온 부모님도 수업이 궁금하

긴 마찬가지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여름 특강 중 ‘내 아이 책 읽는 습관기르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 금요일 3시~5시 사하구청 전산실에서 열렸다. 총 8회 수업 중 6회 이상 수강한 학생에게는 수료증도 발급된다. 2012년 사하구 평생학습관 수업 시작 이후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시간에는 학생들의 독서 수준을 검사하여 학년별 권장도서가 아닌 학생 개인에게 맞는 권장도서를 읽게 하였다. 학생들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를 준비했다. 집중력을 위한 박자 세기, 눈 운동 후 독서대를 이용해 허리를 꽂꽂이 세워 책을 읽게 하면 효과적인 독서 방법을 체험하게 하였다. 책을 읽고 나면 독후 활동으로 컴퓨터로 내용 이해 문제 풀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등의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다. 컴퓨터를 처음 해본다는 학생은 신기해서인지 질문도 많고 문제도 열심히 풀었다. 빙글빙글 의자를 돌리던 학생도 바른 자세로 수업에 빠져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이 1~2권의 책을 읽고 활동하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유정아 강사는 “학생들에게 맞는 권장도서로 올바른 초등 독서 습관이 길러져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과 함께 더위를 잊고 생각까지 키워주는 독서 수업이 일년 열두 달 계속 된다면 어떨까.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 내가 직접 만드는 문화유산모형 3D건축모형으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들뜬 마음으로 사하구 평생학습관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제 1강의실에서 3D건축모형으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이 진행되었다. 시대별 중요한 문화유산을 3D건축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설되었다.

1교시 역사이론 수업시간에는 동영상을 보며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졌다.

긴 이론 수업이 끝나고 2교시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백제시대 부흥의 왕 무령왕릉을 만들어 봅시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씩 끼워가며 직접 퍼즐을 맞추었다. 순서대로 끼우니 점점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다. 끼우는 순서를 놓친 아이는 옆 친구의 도움으로 조금씩 모형이 완

성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먼저 완성해 기뻐하는 목소리,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실망하는 목소리, 서로 도와 퍼즐을 맞추는 목소리 등 강의실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드디어 참여한 아이들 모두 모형을 완성하였다. 자신이 만든 모형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뿐만 아니라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한 국사를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느끼길 바란다.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마인드 특강

사하구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에는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의 강의로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구민 6백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Global Talent에 관해 강의하였다.

유원식 회장은 33년간 IT업계에서 하던 일을 접고 2015년 3월에 기아대책 회장으로 취임하여 인생 이모작을 시작했다. IT업계 종사경험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어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연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Global Talent 5가지는 무엇일까?

뛰어난 재능과 함께 바른 인성을 길러야 국제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나와 남이 다른 인정하며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 둘째, 소통이 되려면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셋째,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국제사회는 말하는 사회다. 발표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길러야 하는 습관이다. 넷째, 능력보다 성품이 중요한 경쟁력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다섯째, 열정이 있어야 한다. 나눔과 봉사가 이제 우리의 열정이다. 봉사도 힘이 있을 때 시작하고 연습을 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강의를 들은 건국고 이재진 학생은 “내 자신이 변화해야겠다. 앞으로는 질문하는 용기를 내어보겠다”고 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갔기를 기대해 본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 동화구연으로 봉사하는 즐거움

## 동화구연을 사랑하는 '동사모'를 만나다

사하구민들은 다양한 동기와 이유를 갖고 평생학습관의 문을 두드린다. 강의가 좋아 수업을 듣다 보면 새로운 만남도 이루어지고 유익한 자격도 얻게 된다. 또 다른 의미의 활동도 하게 돼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이들도 있다. '동사모' 회원들도 그렇다. '동사모'는 동화구연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지난해 사하구 평생학습관 하반기 교육을 마친 회원들의 열정과 지도강사였던 이화영 교수의 지원이 만나 동사모가 탄생하였다.

동화구연 2급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딴 12명의 회원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다.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 동화구연에 대한 학습을 하고 봉사활동을 한다. 회원들이 2명씩 돌아가면서 월 2회 이상 어린이집에서 동화구연을 하고 있다. 동사모의 동화구연 활동 계획표에는 사하구의 18개 어린이집에 대한 세부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한 번 가면 다시 와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2월과 3월에는 어린이집을 무려 16곳 방문했다고 한다. 대단한 열정이다.

손미영(42세, 괴정동) 동아리 회장의 동화구연 사랑은 남다르다.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그는 낮 시간 학원의 빈 공간을



동아리 회원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한다. 동사모는 올해 처음 어린이집 봉사를 시작했는데 '동화야 놀자'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다. "우리 회원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재능 기부와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키워 더 많은 재능기부도 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동화구연을 하면 아이들도 즐거워하지만 진행하는 강사들이 더 즐거워한다는 그는 이제 노인들을 위한 동화구연을 준비하고 있다. 사하구가

주최한 '김인자 작가 초청 강연회'가 계기가 돼 노인을 위한 동화구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회원 모두 재능기부를 할 때에는 손동작과 노래로 이야기하고 유통한다. 회원들은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고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소문 노인대학에서 노래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옥기(67세, 갑천동) 회원은 색동회가 주최하는 노인 실버 동화구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실력자다. 그는 동화구

연 2급 지도사와 웃음치료사, 실버강사자격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어린이와 노인을 사랑하고 동화구연을 사랑하는 동사모는 특유의 사람 냄새가 향기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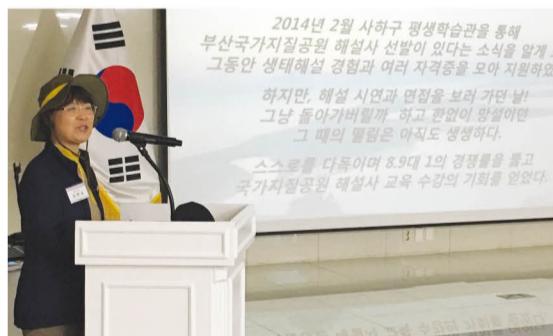
한편 매월 빠짐없이 어린이집에서 동화구연을 하려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정기 모임을 통해 동화를 정하고 매체(인형이나 그림) 만들기를 하면서 다음 달 재능기부 장소를 정한다. 활동할 회원을 정하고 지도교수와의 수업 일정도 챙긴다. 동아리가 조직된 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획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11월에 열리는 문화콘텐츠 개발원 주최 동화구연대회도 참가할 계획이다. 동사모는 동아리 발전을 위해 신입회원도 계속 모집 중이다. 동화구연을 사랑하고 봉사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한다. 관심있는 분은 손미영 회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 : 동사모회장 010-8222-3541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 제4회 전국평생학습자발표대회

### 김현순씨 배움나눔 사례발표



제4회 전국 평생학습자 발표대회가 지난 6월말 강원도 동해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평생학습자가 직접 사례발표를 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사하구에서는 김현순(59세·다대동)씨가 배움나눔 부분으로 사례발표를 했다. 일찍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살던 김현순 씨는 중년이 넘어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면서 평생학습관을 찾게 되었다. 자연학교 생태해설사 과정을 시작으로 부산국가지질공원 해설사, 해양생태 해설사 등 생태전문가로 거듭났다. 마음의 상처까지 평생학습으로 치유되었다는 그는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며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현순 씨의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 아름다운 그대

## 종이로 펼쳐낸 예술의 세계

### 사하종이문화교육원 이미자 강사 이야기



아무리 바빠도 배워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 종이로 무엇이든지 만들어내고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이미자(54세, 다대2동) 강사를 만났다. 이미자 강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하종이문화교육원에 들어서자 잘 정리된 작품들과 북폴딩이 눈에 들어왔다. 책 속에 있는 글자 '종이비행기'가 유독 눈에 띠었다. 종이로 정성껏 만든 화분의 꽃들도 생화처럼 아름다웠다.

20년 전 보험회사 교육을 받으려 갔다가 앞사람이 종이접기를 한 것을 보았다. 이미자 씨는 호기심으로 종이를 접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미자 강사의 종이사랑은 이렇게 운명처럼 시작되었다. 북아트, 북폴딩, 클레이, 냅킨공예, 토탈공예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직접 종이 접기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 특히 웹아트 북폴딩은 벼려지는 두꺼운 책을 접어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서 만드는 작품인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책과 관련이 있어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화병과 꽂은 각과 비율에 따라 접어야 한다. 화병이 만들어지면 꽂모양으로 접거나 오리고 붙여 꽂을 완성한다.

이미자 씨가 강사로 활동한 지 20년째. 많은 수강생들이 종이로 창작물을 만들었고 배움의 즐거움도 깨닫고 갔다. 강의가 좋다면 이미자 강사의 강의를 따라다니며 듣는 마니아층도 생겼다고 한다. 이

런 수강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미자 강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싶다고 했다.

지난 6월에는 제1회 부산인재평생교육주간 행사에서 '종이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부스를 운영했고 작품도 전시했다. 이미자 씨는 아무리 바빠도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알리는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평생학습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이웃의 삶도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최근 이미자 강사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북아트, 북폴딩, 냅킨공예, 클레이, 토탈공예 강좌를 개설하고 딸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이다. 현재 딸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기에 꿈이 현실화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을 듯 보인다. 종이로 이뤄지는 예술 영역이 보다 주목 받고 지도자도 더 많이 양성돼 종이가 주는 예술성을 사회적으로 공유해보고 싶다. 종이접기 활동은 노인들에게는 재활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에게는 두뇌개발, 집중력,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이미자 씨. 인생 전환기에 새롭게 꿈꾸는 그의 꿈이 하루 빨리 현실이 되길 바란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